

# 이누이트 작품, 기후위기 법정... 다양한 전시 만나요

###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발길...프랑스 등 9개국 참여 이강하 미술관·광주시립미술관·은암미술관·이이남 갤러리 등

광주에서 처음 접하는 캐나다 이누이트 작가들의 작품은 신선하다. 킨가이트 스튜디오 소속 작가들의 작품은 특별한 아트 스킵 없이, 멘토십만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마치 아이의 작품처럼 동심을 느낄 수 있고, 그레, 곰, 새 등 작품에 등장하는 동식물은 자연과 인간의 하나됨을 감지하게 해준다.

캐나다 대사관과 협업체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는 '신화, 현실이 되다'전은 90시부터 20대까지 이누이트 예술가 32명의 작가 90여점을 만나는 전시다.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열리는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등 9개국이 참여한 이번 파빌리온에서는 동시대 화두인 기후 문제와 자국 전통, 소수민족 문화 등을 아우르며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네덜란드 파빌리온 '세대간 기후 범죄 재판소(CICC)' 중 '멸종전쟁'은 수백개의 모래 주머니를 직접 전시장에 설치해 마치 군사전선을 연상케하며 멸종 동물의 이미지를 융합한 상징물을 함께 배치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요나스 스탈, 라다 드수자는 전시장을 과거, 현재, 미래에 저지르는 기후 범죄를 기소하는 가상 법정으로 변신시켰고, 지난 4월 7일과 8일 열린 재판 모습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양림미술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파빌리온은 마치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느낌이 든다. 지난해 열린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지네브 세디라의 작품 '꿈은 제목이 없다'를 한국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작은 극장처럼 꾸며진 지하공간에서는 영상 작품도 상영 중이다.

은암미술관에서 만나는 중국 파빌리온은 '죽의

심원(竹意心源: 뱀부로 보는 마음의 공간)'이라는 주제 아래 중국 문명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대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특히 대나무의 속성을 스테인리스 스틸로 대체해 제작한 설치 작품과 대나무와 어우러진 다양한 인간 군상의 조각품이 눈길을 끈다.

스위스(이이남 스튜디오)의 'Spaceless'는 스위스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진작가 8명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작가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도시 건축물과 가상의 공동체와 풍경을 포착해 50점의 사진, 비디오, 설치미술로 선보인다.

이탈리아(동곡미술관)는 '잠이 든 물은 무엇을 꿈꾸는가'를 주제로 카밀라 알베르티 등 5명의 작가가 물의 은유를 통해 인간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관계변화의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공존을 제시하는 영상, 사운드, 조각 등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광주미디



▶캐나다 파빌리온에서 만나는 이누이트 작가들의 작품.



양림동에서 열리는 프랑스 파빌리온 지네브 세디라의 작품 '꿈은 제목이 없다'

아트플랫폼)은 '불규칙한 사물'을 주제로 새롭게 해석한 사물의 존재에 대해 탐구하며 폴란드(10년 후 그라운드, 갤러리 포도나무)는 '포스트 아티스틱 어셈블리'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크라이나(국립아시아문화전당)는 '우크라이나: 자유의 영토'를 주제로 자유를 향한 여정을 담은 영화 세 편을 토요일마다 상영한다. 갤러리 포도나무에서도 우크라이나 프리필름즈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9개국 전시 관람하고 스탬프 찍어오세요"

### 5월 21일까지 파빌리온 스탬프 투어... 다양한 경품 제공

제) 광주비엔날레는 제58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으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스탬프 투어'를 5월 21일까지 진행한다.

파빌리온 참여 국가인 캐나다 등 9개국의 전시를 둘러보고 스탬프를 5월 21일까지 찍으면 다양

한 경품이 제공된다. 9개국 스탬프 투어가 완료되면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시민의 날 행사장 내 광주비엔날레 부스에서 광주상생카드를 선착순 50명에 한해 제공할 예정이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도 SNS 이벤트 참여 시 스탬프 갯수에 따라 호텔 레스토랑 2만원 크레딧 쿠폰, 7만7000원 상당 와인 등 다양한 경품을 5월 21일까지 증정한다. 문의 062-608-422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은암미술관에서 '죽의심원(竹意心源: 뱀부로 보는 마음의 공간)' 주제로 열리는 중국 파빌리온.

## 어린이 위한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키즈클래식'

### 광주시향 '동물의 사육제' 연주 5월 5~6일 전남대 민주마루

'우리 아이 클래식과 친해지는 법'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 '그림자극과 함께하는 키즈클래식'을 마련했다. 5월 5일(오전 11시~오후 3시~5시)~6일(오전 11시~오후 3시)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이번 음악회는 클래식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그림자극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발견하고 더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부지휘자 김영언이 지휘봉을 잡고, 그림자극은 극단 영이 진행한다. 피아니스트 조사무엘과 조민정이 협연한다.

그림자극으로 선보이는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와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는 어린이를 위한 대표적인 클래식 작품으로 어린이들의 지적 호기심과 음악적 상상력을 동시에 자극한다.

'피터와 늑대'는 작곡가 프로코피에프가 직접 어린 소년 피터가 동물 친구들과 함께 늑대를 잡아 동물원에 보내는 이야기를 담은 클래식 음악 동화다. 늑대 역은 호른이, 피터 역은 현악기가 연주하는 등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플루트, 오보에, 바순 등 여러 가지 악기로 표현된다.



그림자극과 함께 펼쳐지는 광주시향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광주시향 제공〉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는 사자와 닭,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수족관, 뼈꾸기, 백조 등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재치 있게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14개의 각각의 에피소드는 동물의 생김새와 걸음걸이, 울음소리 등 동물의 특징을 음악으로 묘사했다. 특히 잔잔하게 펼쳐지는 첼로 선율

로 우아한 백조의 모습을 묘사하는 13번째 곡 '백조'는 가장 널리 사랑받는 곡이다.

36개월부터 이상 입장할 수 있으며 문예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S석 2만원, A석 1만원. 062-613-824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세상을 향한 애뜻한 그리움 '예술 정원'

### 백현호·류현자·박유자 등 5명...5월1~31일 담양명지미술관

푸른 잔디,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담양명지미술관(관장 우정은)은 이맘 때 찾아가기 좋은 곳이다. 야외 공간에서 천천히 산책하며 힐링하고, 미술관에 둘러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근사한 즐거움이 있다.

담양명지미술관(담양군 고서면 덕촌길 37) 기획초대전이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예술의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섯명의 작가를 초대해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화가 류현자·백현호·김대진, 서양화가 박유자·이방일 작가가 세상을 향한 애뜻한 그리움과 낭만적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다.

류현자 작가는 오랫동안 작업해온 '사모곡' 시리즈를 선보이며 김대진 작가는 고양이와 맨드라미가 등장하는 'Sweet Dream'을 전시한다. 정산 백현호 작가는 화면 가득 쏟아지는 꽃들의 향연을 표현한 '꽃비가 내려요' 등을, '해바라기' 연작을 작업해온 서양화가 박유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연 속으로-적송'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방일 작가는 물고기해 해엄치는 푸른 바닷속 풍경을 몽환적으로 묘사한 '별루' 등의 작품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우정은 명지미술관 관장은 "초록이 가득한 봄, 저마다의 감각으로 색을 표현한 다섯 명의 작가 작품을 통해 낭만적인 봄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383-257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대진 작 'Sweet Dream'

## 공선옥 강연 '악에 대처하는 방식'

### 광주문화재단 '빛고을 융복합 레저콘서트' 5월4일 첫 강연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저명인사 6인을 초청해 5·18 광주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와 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5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빛고을 융복합 레저콘서트'를 연다.

첫번째 강연은 소설가 공선옥이 '악에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곡성 출신인 공 작가는 1991년 중편소설 '씨앗밭'로 등단했으며 1995년 제13회 신동엽장

작기금을 받았다. 2004년 제12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2009년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시절들', '붉은 포대기', '수수밭으로 오세요', '유랑가죽' 등을 펴냈다.

빛고을 융복합 레저콘서트는 이후 5월 11일 박문옥 '광주가 사랑한 오월의 노래', 5월 25일 나경택 '발포 명령자는 누구나?', 6월 1일 나의 갑 '5?18 조작과 진실, 그 10가지', 6월 8일 변현이 '그림으로 본 10일의 오월 항쟁', 6월 15일 김형중 '폭력과 증언-서울의 아들'(라자로



공선옥

박문옥

네메스, 2016)을 중심으로'가 펼쳐질 예정이다.

무료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람신청(선착순 100명)은 전화(062-670-7942)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광역-기초 거버넌스 구축 운영기관 공모

전남문화재단(대표 김선출)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거리 또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광역-기초문화재단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5월 17일까지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도내 지자체 운영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에 총 8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 문화기획자의 활동기반을 마

련하고 지역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참여기관은 지역 문화개발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업의 방향성을 광역재단과 함께 고민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신청자격은 전남 도내 기초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 문화도시센터 등 지자체 운영(출연) 문화기관이며 사업비 1:1 매칭이 필수다.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